광고경기5개월연속맑음

하반기 ASI도 100 상회, 월드컵 이후 광고경기 좋을 것으로 예상

이충관/ 한국광고주협회ASI조사팀장

광고경기가 5개월 연속 호전될 전망

광고경기실사지수(ASI)를 조사한 결과

5월 ASI 전망치가 122.7

이처럼 ASI가 상승세를 보인 것은

5월이 광고시장의 계절적인 성수기이고,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 마케팅이 절정에 달하며

광고물량이 급증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

광고경기가 5개월 연속 호전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광고주협회가 업종별 4대매체 기준 300대 광고주를 대상으로 광고경기실사지수(ASI)를 조사한 결과 5월 ASI 전망치가 122.7을 기록했다.

이로써 ASI는 지난 1월 이후 5개월 연속 100 이상을 기록하며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월 이후부터는 120 이상의 높은 지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월별 ASI가 100 이상이면 광고경기가 지난달보다 호전될 것으로 생각하는 광고주가 더 많고, 100 이하면 부진할것으로 생각하는 광고주가더 많다는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5월 ASI가 상승세를 보인 것은 5월이 광고시장의 계절적인 성수기이고, 5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마케팅이 절정에 달하며 광고물량이 급증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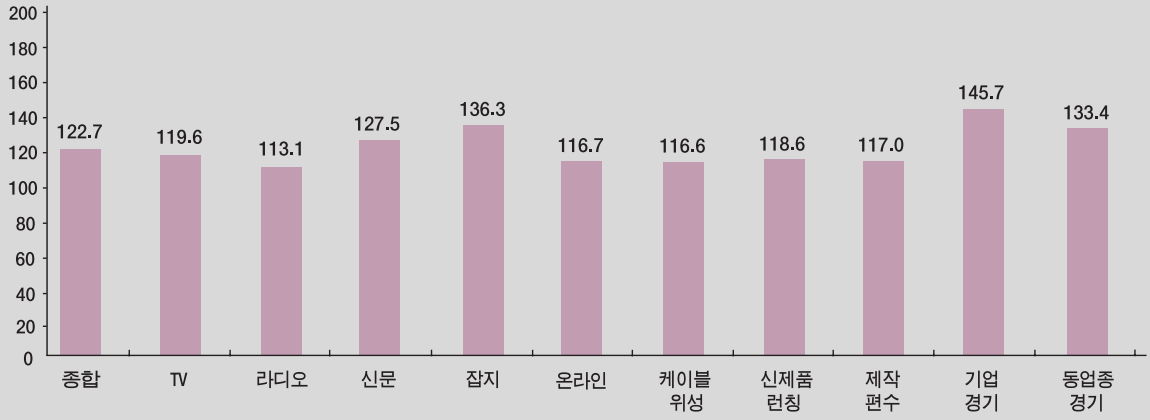
또한 하반기 광고비 지출 전망 ASI도 102.0을 기록함으로써 월드컵 특수 이후에도 광고시장의 전망은 비교적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반기에 경기 확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기업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광고주들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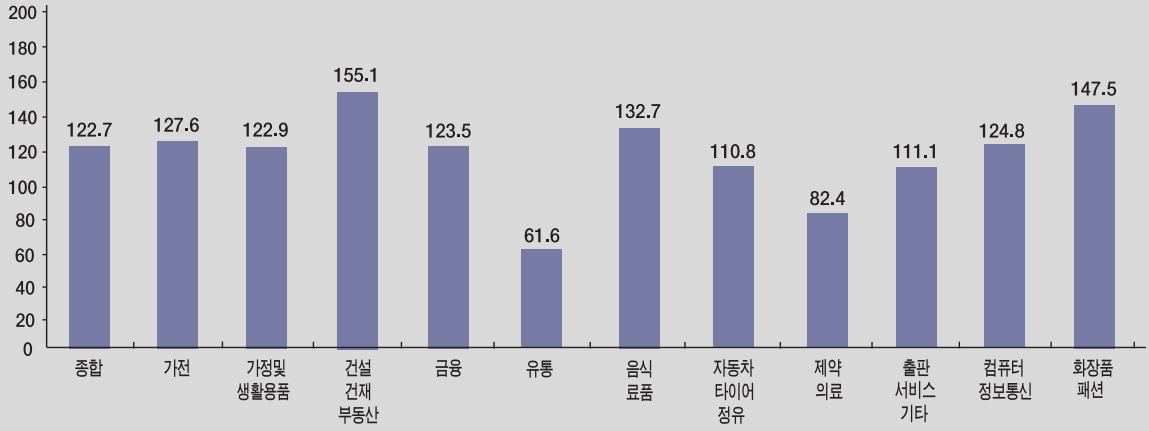
5월 매체별 ASI는 TV(119.6), 신문(127.5), 라디오(113.1), 잡지(136.3), 온라인(116.7), 케이블 · 위성 TV광고(116.6) 등 모든 매체의 광고경기가 고르게 호전될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 · 건재 · 부동산(155.1), 패션 및 화장품(147.5), 음식료품(132.7), 가전(127.6), 컴퓨터 및 정보통신(124.8), 금융(123.5), 가정 및 생활용품(122.9), 출판 · 서비스 · 기타(111.1), 자동차 · 타이어 · 정유(110.8) 등은 호전될 것으로 조사된 반면, 유통(61.6), 제약 및 의료(82.4) 등은 부진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항목별 ASI



업종별 ASI



ASI 추이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망	100.0	116.9	105.2	96.2	91.0	84.8	117.0	90.1	88.5	91.6	101.0	124.8	134.7	122.8	122.7
실적	116.8	104.8	102.1	94.3	89.8	84.6	109.7	96.8	82.3	88.1	101.9	109.1	124.3	117.7	
누적치	100.0	116.9	122.1	118.3	109.3	94.1	111.1	101.2	89.7	81.3	82.3	107.1	141.8	164.6	187.3